

향토관광을 연계한 경영수익사업 확대

- 전남 곡성군-

I. 향토관광 사업추진배경

1. 지역여건

가. 일반현황

곡성군은 면적 547.37㎢로 경지 17.7%, 임야가 72.5%이며, 인구는 38,767명, 행정구역은 1읍 10면 125리이며 공무원 정원은 519명으로 1인당 27가구, 74.7명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구조는 농림업 68.7%, 광공업 11.6%, 서비스업 등이 19.7%로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예산규모는 1,133억원, 재정자립도 10.9%로 재정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 지리적 · 문화적 특성

곡성군은 전라남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동은 구례군, 남은 순천시와 화순군, 서는 담양군, 북은 전라북도 순창군, 남원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가교역할을, 지리적으로 광주광역시, 남원,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이들간의 연계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전라선 국철과 호남고속도로, 동서로는 88고속도로와 남해안고속도로가 곡성으로 연결되어 종·횡축 연결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면적 547.37㎢중 72%가 산림인 곡성군은 『꼴짜나라』라는 브랜드처럼 도처에 준봉의 기복이 많은 산악형 지형으로 평야지대는 협소한 편이며, 전라남도 3대강 중 하나인 섬진강은 곡성군의 북동쪽으로 흐르면서 보성강과 압록에서 합류하여 본류를 형성, 농

업 등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인구 3만8천여명의 협소한 지역세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로부터 소외된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이 유일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관광자원 및 문화재 현황

자연자원인 섬진강, 보성강과 이를 근간으로 압록유원지, 동산유원지, 청계동유원지가 있으며, 등산로가 잘 가꾸어진 동악산, 통명산, 곤방산, 봉두산, 설산 등이 있고 골프장 1개소와 관광농원 4개소가 있다. 사찰로는 신라 구산선문중의 하나였고 혜칠선사, 도선국사가 득도한 태안사와 원효대사가 창건한 도림사, 백제의 관음사가 있으며, 문화재는 혜칠스님의 부도탑인 적인선사조륜청정탑 등 총 30점으로 국가지정 7점, 지방지정 23점이 있음. 특히 돌실나이와 낙죽장도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기능을 이어오고 있다. 기타 고려개국 공신인 신승겸장군 등 선열들의 유적지와 6.25당시 가장 치열했던 경찰전적지에 충혼탑과 승전탑이 있다.

2. 추진 동기

지역의 산업구조가 농업위주의 1차산업으로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인구의 이동현상과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생활권은 3개 지역으로 광주·남원·순천으로 분할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학생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악화가 인근 광주 등의 대도시로 인구이동을 부추기고 있다. 큰 볼거리·놀거리가 없고, 전국적인 특산물이 미미하며, 특히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양전남과는 너무 동떨어진 산간지역으로 정부의 광역개발권역 또는 여타 개발 축에도 포함되지 않은 배후지로, 지역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다. 깨끗한 환경과 섬진강 등 자연자원, 조그마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화하고 유인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찾던 중, 철도청의 전라선 직선화로 폐선이 된 17.9km의 구간과 관음사 연기설화가 심청전의 근원설화라는 점을 착안,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과 심청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향토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프로그램화 하게 되었다.

3. 추진 필요성

1999년에 완공한 전라선 철도개량화사업으로 폐선이 된 곡성군 곡성읍 섬진강 제2교에서 오곡면 압록까지 17.9km의 철길과 구 곡성역이 폐지됨에 따라 폐자원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될 위기에 놓였다. 동 구간은 섬진강과 국도17호선, 전라선 철길이 나란히 달리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임을 감안 폐철로를 철거하지 않고 이를 활용 독특하고 창조적인 공

간구성을 통하여 국내 유일의 「기차」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섬진강 유역권을 관광벨트화 하고, 소설과 판소리로만 전해 내려오던 만고효녀 심청이 「관음사 사적기」의 기록에 의하여 1700년 전 곡성출신 실존인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문화의 21세기에 「심청」의 효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여 곡성군을 '효의 본산'으로 개발, 「효 문화」를 전국적·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오염되지 않는 섬진강 보성강변의 향토문화관광과, 춘향골 남원, 지리산권을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소득 창출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4. 주변의 관광환경

같은 지리산권인 인근 남원시는 춘향관련 문화자원과 광한루원, 지리산국립공원 등이 있고, 구례군은 사찰문화권, 지리산 온천 등이 있어 연간 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순천의 낙안읍성, 송광사 등의 사찰, 담양의 죽물박물관, 가사문화권, 화순 온천 등 크고 작은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호남고속도로와 전라선 철도 등의 도로망을 활용하고, 남원과 구례의 중간지역이라는 이점을 활용하면 유리한 여건조성이 가능하다.

II 향토관광 사업의 테마

1. 섬진강 기차마을

가. 개발 범위

- 계획 목표년도 : 2004년
- 위치 : 곡성읍 신기리 섬진강 2철교 ~ 오곡면 압록역(섬진강 유역)
- 사업량 : 폐철로 17.9km, 옛 곡성역 건물 10동과 부지 42,638m², 기타 폐철로 등 부지 178,614m²
- 사업비 : 4,620백만원(국비 2,310, 도비 40, 군비 2,270)
- 기본테마 : 기차의 추억과 섬진강변의 자연환경, 그리고 농경문화체험

나. 섬진강 기차마을 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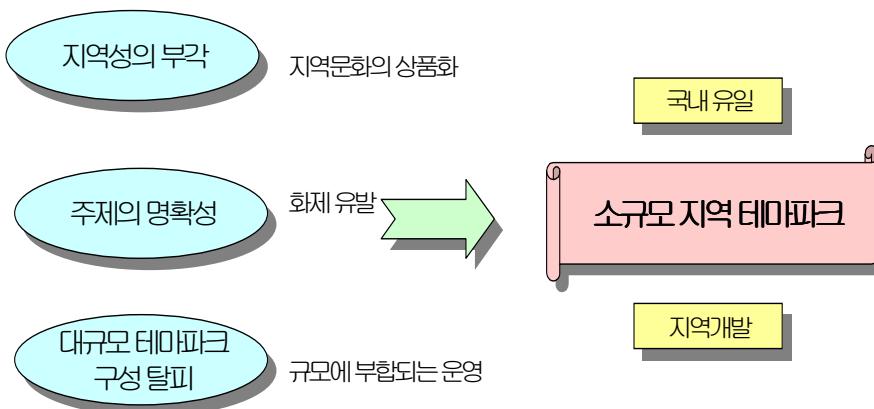
1) 향수(Nostalgia)-내고향 섬진강 그리고 기차

치열한 삶이 주는 피로와 물질문명이 주는 건조함에 지친 현대인, 특히 70년대까지 자연

과 고향이 주는 따사로움을 맛보고 자란 20대 이후의 청·장년층은 잠시라도 일상을 떠나 물장구 치고 고기 잡는 추억을 되살리고 싶으며 그들의 아이들에게는 고향의 의미를 소중히 간직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섬진강은 끈끈한 가족애가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잇고 흙, 강, 나무, 꺽지, 황소가 이야기의 터전을 이루는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통발 속에서 빛나던 은어의 찬란함, 손가락을 깨물어 오던 참게의 집게손가락, 온누리에 피어있던 들꽃의 귀여움,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 기대어 바라보던 강촌의 연기와 피어 오르던 황흔, 이 모든 것들이 고향이 주는 향수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강촌과 기차를 매개로 불러 들이는 향수의 공간이 바로 곡성 기차마을이며 그 곳에는 우리가 다시 가보고 싶은 과거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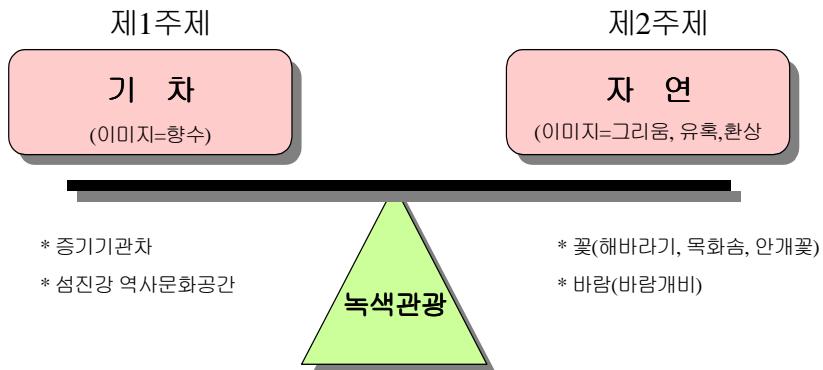
2) 타 지역과의 차별화

- 차별화 기본 원칙



곡성의 향토이미지와 섬진강의 깨끗한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공간에 도입하여 곡성은 전라선 철도가 지나는 수려한 전원마을로 산물이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의 고장이며, 젊은 곡성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관광 고장이고, 섬진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청정의 강, 생태와 문화의 보고로 보존하고 있음을 부각, 관람객들에게 화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곡성역과 향수의 기차마을이며, 지나간 날의 회로애락을 되살릴 수 있는 공간 및 기차와 고향에 대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의 명확한 주제설정과, 소규모의 밀도 높은 공간 구성으로 경제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관광로 지나친 투자와 상업성이 짙은 놀이기구 등의 도입은 자제하여 자연스럽고 환경 친화적인 단지조성과 지역 테마파크에 부합되는 아이템 개발이다.

3) 기차마을 개발 개념도



2. 만고효녀 심청 효 선양사업

가. 곡성 효녀 심청 배경

백제의 고찰인 관음사와 연기설화는 심청의 근원설화로 알려져 있었으나, 곡성심청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곡성의 침체를 극복하고 일체감 조성을 위한 문화유산을 찾던 중 관음사 사적기의 기록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 소설과 판소리로 전해오던 만고효녀 심청이 곡성출신 실존인물임이 학술적으로 고증됨에 따라 문화의 21세기에 심청의 효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여 곡성군을 효의 본산으로 개발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원의 열녀 춘향과 곡성의 효녀 심청이 연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고전문화의 고장으로 승화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나. 효녀 심청과 곡성군과의 관계

심청은 곡성군에서 서기 286년(백제 고이왕 말년)에 출생하였고, 아버지는 원량(元良)으로 심청의 본래 이름은 원홍장(元洪莊)이었으며, 서기 301년(당시 16세)에 완도군 금일도의 소랑포를 떠나 중국 회계국 심국공의 아내가 되면서 심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심청은 심국공의 아내인 성비가 되어 불상을 조성하고 고국을 위해 서기 312년에 불상을 석선에 실어 보내옴에 따라 옥파의 성덕 처녀가 별교 낙안포의 단교에 도착한 불상을 모셔와 12정자를 거쳐 하느재를 넘어 성덕산 기슭에 불상을 모신 곳이 오늘의 곡성군 오산면에 소재한 관음사이다. 효녀 심청의 역사적·학술적 고증연구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맡아 추진하였고 관음사 사적기(1729년 백매선사/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에 의해 고증되었으며, KBS 역사스페셜이 2001년 4월 1일 20:00에 『역사추적 심청의 바닷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영한바 있다.

다. 심청마을 조성

1) 사업 개요

- 시설물 : 전통형 초가마을 조성(부지 78,000m², 건물 20동 m²)
- 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750, 군비 2,250)
- 사업 목표년도 : 2003년

2) 기본 방향

- 주제부여를 통해 차별화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심청마을로서 아이덴티티 확립
- 생태적으로 안정된 지역환경 조성으로 자연 친화적 마을 조성
-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생동감있는 교육의 장을 구성하여 교육과 레저의 연계

3) 주요시설 배치계획

- 진입로 - 겸허하고 소박한 마음을 갖도록 함
 - 캐릭터 등 아이덴티티 상징물을 설치하며, 도보로 입장하고, 심청마을 안내소와 종합안내도, 느티나무쉼터,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
- 오솔길 - 쉬어갈수 있는 산책로 구성
 - 포켓야드로 초가정원과 벤치, 돌무덤 등을 구성하고, 오솔길을 조성함
- 테마전시관 - 심청 이야기
 - 심청 이야기 : 심청 일대기 인형연출, 관음사 사적기 소개, 한·중·일 관련서적 소개, 출생, 태어난 곳, 가족 및 심청의 이동 경로,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
 - 주제별 전시 및 기념품 전시
- 심청마을 - 전통 문화체험 마을
 - 자연그대로의 무릉도원과 도화천, 옥녀탕등의 개울을 활용하고
 - 빼덕어멈집을 포함한 민가조성,
 - 야철지 및 대나무 숲, 간단한 식음시설과 민가, 마을마당의 조성, 몽운사, 망사대, 살태골 등 설치
 - 초가집 숙박시설 설치 등 체험공간 구성 등 인위적 시설 및 포장제한

라. 심청문화센터 조성

1) 사업 개요

- 위치 : 광성군 오산면 선세리 성산분교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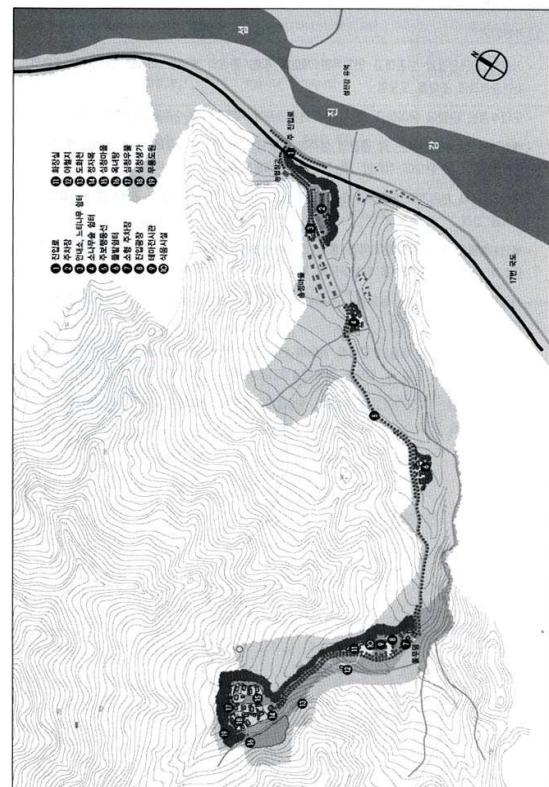
- 시설물 : 부지 49,308m², 건물 2,929m²
- 사업비 : 2,400백만원(국비 720, 지방비 1,680)
- 사업 목표년도 : 2003년

2) 수용프로그램

- 놀이 체험 프로그램
 - 자연환경속에서 놀이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려 주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단위 혹은 단체가 참여하며,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절별 세시 풍속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함
- 심청관련 프로그램
 - 자녀, 부모, 조부모의 3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적 훈육적 지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효를 느끼게 지도
-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 직접 전통 공예품이나 도예품을 제작하는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마련
 - 무형문화재의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을 위한 공간조성
- 기타 숙박시설, 관리 : 심청문화센터 사용자를 위한 시설조성, 단체 혹은 가족단위 방문객 중심 프로그램 운영

3) 시설 배치

- 성산분교 부지
 - 문화체험센터와 숙박시설, 관리동으로 구성하며, 민속공예품을 제작하는 공방과 도예를 위한 작업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기타 부대시설, 곡성관광 정보 시스템을 위한 정보관 포함
 - 시설물은 기존 성산분교를 리모델링
- 야외 놀이공간
 - 민속놀이와 야외공연을 위한 공연장과 전통 공원 설치
 - 「효」 박물관 설치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



<시설배치계획도>

는 공간 마련

III. 추진 성과 및 경영수익성 분석

1. 추진 성과

가. 섬진강 기차마을의 관광 이미지 완성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 사업이 문화관광부 2000년 신규 관광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국비지원 계획사업(예산확보액 2,620백만원 : 국비 1,310, 지방비 1,310)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 국도와 철길사이에 철쭉 12만본과 화목류 조경목 식재로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공공근로 시책추진 우수기관 표창 수상), 옛 곡성역(부지 43,397m², 건물10동)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 완료하고, 부지 등에 기차를 테마로 한 철도공원화 사업추진, 폐선로 13.2km에 대한 주변조경과 간이역 4개소 설치, 캐릭터 기차 제작 운행과 폐객차 3량 구입 옛 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임대사업 추진, 『치포치포 섬진강 나들이 관광열차』 유치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철도청과 곡성군 주관으로 서울출발 『치포치포 섬진강 나들이 관광열차』의 운행을 연중화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지역소득과 연계, 폐선로에 4개소를 관광열차 간이역으로 조성하고, 주변 한적한 강촌마을인 고달면 가정마을에서, 옛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협곡의 섬진강의 풍경과 강물을 즐길 수 있으며, 태안사 등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함과 동시에 농산물 재배·수확 등에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향토자원을 최대한 프로그램화하고, 섬진강변 자전거 하이킹도로 개발과 33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성공, 2001년까지 56회 22,721명의 수도권 열차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2002년에도 관광열차 승객은 꾸준히 유지되고, 평일에도 인근 광주·여수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체험형 녹색관광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지도

1. 청호정(청호리)	10. 우성정(우성리)
2. 청호교(청호리)	11. 청호교(우성리)
3. 청호교(우성리)	12. 우성정
4. 강변	13. 우성정
5. 청호정(우성리)	14. 청호정(우성리)
6. 옛역사(기차역)	15. 청호정(우성리)
7. 옛역사(기차역)	16. 청호정(우성리)
8. 대피승강장	17. 청호정(기장을, 판매소)
9. 대피승강장	18. 판매소

나. 곡성의 효녀심청에 의한 효 문화 확산

1) 지금까지 추진사항

- 『효녀심청』의 국문학적·역사학적 고증연구 학술용역
 - 연구기간 : 1999. 7 ~ 2000. 10.

- 연 구 기 관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 구 근 거 : 관음사 사적기(1729년 백
매선사 / 송광사 박물관 소장)
- 학술 발표회 : 2000. 11.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KBS 역사스페셜 “역사추적! 심청의 바닷길” 방영
 - 방 송 일 시 : 2001. 4 1(토) 20:00, 2002. 1 재방송
- 『효녀심청』 관광개발 특화사업 추진
 -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2001. 9)
 - 심청마을 조성 및 심청문화센터 건립 (2001~2003 / 49억원 예산확보)
 - 심청문화센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추진 : 2002. 6 ~2002.10)
 - 심청공원 및 효심동산 조성 (1999, 12 / 1억3천 / 민간자본 포함)
 - 심청문화센터 예정 분교에 석운 윤병하선생의 『효제학당』을 운영하여 연간 만2천여명이 방문 체험(2001. 3월 개설)
- 『곡성심청축제』 개최
 - 『곡성심청축제 초혼제』 개최 : 2000. 5. 11 (오산면 관음사 일원)
 - 심청제 및 문화행사 등 (참여인원 1만여명)
 - 『곡성심청축제2001』 개최 : 2001. 10. 12 ~ 10. 15 / 4일간
 - 국제학술대회 및 문화행사 등 4개부문 54개 단위 행사 (참여인원 50만여명)
 -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심청 공양미 3백석 모으기 프로그램 접목
- 『심청 공양미 3백석 모으기』
 - 모 금 액 : 3천 1백만원 (2001. 10. 12 ~ 11. 11 / 1개월간)
 - 모금방법 :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와 전남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모금하고 전남
대병원이 진료 및 KBS광주방송국 홍보후원
 - 무료개안수술 : 80명(전라남도내 노인)

2. 경영수익성 분석

곡성군의 경우 대단위 위락시설이 없고 산업화와 광역단위 지역개발사업들로부터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순천·남원 등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및 경제유출이 심각한 전형적인 농업군임,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의 경제는 피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자치단체는 잠수하는 민간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지역경영의 책임을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위로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영자로서의 수요창출이라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

해 새로운 공익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의 경영수익성 분석

○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총 투자계획 : 4,620백만원(국비 2,310, 도비 40, 군비 2,270)
- 2002년까지 : 2,620백만원(국비 1,310, 도비 40, 군비 1,270)
- 2003년이후 : 2,000백만원(국비 1,000, 군비 1,000)

○ 기차마을의 경영 수익성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방문자수	수 입	지 출	손 익	현금흐름
2001	14,530	29,545	1,860	27,685	27,685
2002	25,000	100,050	1,200	98,850	126,535
2003	30,000	111,855	1,800	110,055	236,590
2004	346,686	2,373,459	836,038	537,421	1,774,011
2005	381,355	2,858,685	994,005	1,864,680	3,638,691
2006	419,490	3,444,489	1,183,386	2,261,103	5,899,794
2007	461,439	4,151,860	1,410,602	2,741,258	8,641,052
2008	507,583	5,006,181	1,683,403	3,322,778	11,963,830
2009	532,926	5,518,876	1,855,366	3,663,510	15,627,340
2010	559,610	6,084,077	2,032,012	4,052,065	19,679,405

○ 수지분석 : 개장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며, 2006년이면 투자비 4,620,000천원과 2003년까지 사업추진공무원 인건비 5인 450,000천원이 회수되고 2010년까지 14,609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 산출근거

- 수입분석(성장율 : 5년이내 10%, 5년이후 5%)
 - 폐기차 임대 : 10대 120백만원(경쟁임찰)
 - 방문객 수입 : 기념품, 주차료, 자전거트랩, 기차경주, 전시장이용, 각종 이벤트 참여 및 자전거 등 시설대여 등 방문자의 1/2이 7,000원 지출(객단가 3,500원)
 - 기차운행 수입 : 증기기관차 운행수입으로 방문객의 1/3이 증기기관차를 이용(1회 2,000원)하고, 이용자의 1/2이 열차내의 식음료와 카페를 이용 7,000원 지출(객단가 3,000원)
- 지출분석 :
 - 인건비 : 2004년 이후 상근인력 8명 임금 160백만원(1인당 연 20백만원, 매년 10% 성장을 적용)
 - 시설물 유지관리비 : 개장년도 364백만원, 수입의 30% 재투자
 - 증기기관차 운영비 : 312백만원, 수입의 30%

※ 사업추진 지출 : 사업비 4,620백만원(2004년까지 투자), 3년간 기반사업추진 공무원 인건비 등 450백만원 소요

경영우수사례

• 2002년까지 기차마을 관련 경영수익사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항목	행사운영 수입(천원)			
		계	2000	2001	2002(예정)
치포치포 행 사 장	행사참여인원	96회 47,721명	24회 8,191명	32회 14,530명	40회 25,000명
	시설사용료 수입	58,240		14,390	43,850
섬진강변 자 전 거 하 이 킹	자전거대여 수입	47,152	5,797	15,155	26,200
	지 출	소 계 자전거구입 (330대) 보관창고 기타장비	35,418 19,858 12,500 3,060	32,358 19,858 12,500 1,860	1,860 0 0 1,200
	옛 곡성역 폐객차임대 수입 (카페등 시설 3량)	30,000			30,000
	수 입	135,392	5,797	29,545	100,050
지 출	35,418	32,358	1,860	1,200	
손 익	99,974	△26,561	27,685	98,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포치포 행사장의 수입은 시설물과, 행사장(잔디광장 3,000평) 사용료 ○ 자전거 대여사업은 자전거 임대료로 1일 2인용 4,000원, 1인용 3,000원 ○ 폐객차는 옛 곡성역과 치포치포 행사장 철길옆에 카페용도 등 영업용으로 민간에 경쟁입찰 임대 					

• 2002년까지 연계 지역소득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항목	행사운영 수입(천원)			
		계	2000	2001	2002(예정)
치포치포 섬진강 나들이 관광열차행사 프로그램운영	행사참여인원	96회 47,721명	24회 8,191명	32회 14,530명	40회 25,000명
	수 입	소 계 먹거리장터 농특산물판매 태안사관광 농촌체험, 민박 등 기타	615,925 267,941 252,520 18,366 77,098	107,719 50,238 42,785 2,561 12,135	183,206 97,703 59,735 5,805 19,963
	지 출	(시설운영비)	197,597	78,495	59,102
	손 익	418,328	29,224	124,104	26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운영수입은 행사참여업체의 수익을 조사한 통계수치 ○ 행사비 지출은 치포치포 행사장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경영수익차원이 아닌 관광개발 기반시설 투자비용임 				

나. 심청사업의 경영수익성 분석

- 『곡성심청축제2001』 의 추진
 - 2001.10.12~10.15(4일간) 곡성군에 50만명의 인파를 유치함으로써 곡성군의 역량을 총동원하였으나, 수용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한 축제였으며, 숙박시설 등 관광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남원관광단지 등으로 분산이 불가피했음
 - 『섬진강자연생태공원』의 자연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곡성심청축제2001』은 3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 행사장 텐트 160동을 설치함에 있어 식당, 판매장 등 몽골텐트 80동에 대한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112,000천원의 수입을 확보 텐트 160동의 설치비용을 대체하였고, 심청캐릭터를 이용한 상품(12종)은 2,500천원에 한정되었음
 -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숙박, 식당 등 관광기반시설이 100% 가동되었으며, 농특산물의 판매 등 곡성군이 생긴 이래 최대의 효과유발
- 심청사업의 추진
 - 총 투자사업비 : 6,460백만원
 - 예산확보액 : 5,250백만원(국비 1,470 군비 3,780)
 - 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심청마을	심청문화센터	심청축제 (2001~2003)
사업비	6,460	3,000	2,400	1,060

- 심청사업의 경영수익성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방문자수	수 입	지 출	손 익	현금흐름
2001		1,300		1,300	1,300
2002		2,500		2,500	3,800
2003		8,700		8,700	13,800
2004	450,000	3,435,250	1,696,495	1,738,755	1,752,555
2005	495,000	3,778,775	1,866,145	1,912,630	3,665,185
2006	544,500	4,156,653	2,029,333	2,217,320	5,792,505
2007	598,950	4,572,318	2,207,670	2,364,648	8,157,153

경영우수사례

연도별	방문자수	수 입	지 출	손 익	현금흐름
2008	658,845	5,029,550	2,402,611	2,626,939	10,784,092
2009	691,787	5,281,027	2,522,741	2,758,286	13,542,378
2010	726,377	5,545,078	2,648,877	2,896,201	16,438,579

○ 수지분석 : 개장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며, 2006년이 지나면 사업비 및 축제비용인 투자비 6,460,000천원과 3년간의 사업추진 공무원 3명의 인건비 270,000천원이 회수되고 2010년까지 9,708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 산출근거

- 수입분석(성장율 : 5년이내 10%, 5년이후 5%)
- 심청마을 : 입장료(2,000원), 주차료(방문객의 30%, 2,000원), 전통가옥 숙박체험(10동, 1회50,000원년중 50%가동), 상가임대료 연 10,000천원수익
- 심청문화센터 : 입장료(2,000원), 효문화체험 및 숙박(260명 수용 1일 20,000원, 가동율 50%), 상가 및 식당 임대료 20,000천원
- 심청축제 : 심청캐릭터제품 판매 등 15,000천원
- 지출분석
- 인건비 : 2004년부터 10명 240,000천원(5년이내 10%, 5년이후 5% 성장)
- 시설유지관리비 : 매출액의 30%

※ 사업추진 지출 : 사업비 2002년 3,000백만원, 2003년 2,400백만원, 축제비용 2001~2003년까지 1,059백만원과 3년간 사업추진 공무원 인건비 270백만원 소요

- 심청사업의 연계로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 심청마을 · 문화센터 · 축제를 패키지화하여 추진
 - 심청축제의 경우 매년 3억~4억이 소요되나 심청마을과 문화센터는 사업추진년도 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므로 2006년이 지나면 지방재정확충에 안정적 기반 구축
- 지역경쟁력 강화
 - 심청사업과 기차마을사업, 소규모 축제와 자연생태공원등을 향토관광자원으로 연계 하여 추진하면 곡성군의 대외이미지 향상 및 관광객의 증가등으로 관광기반시설인 숙박 · 식당 등 민간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
 -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 민간참여가 어려운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민간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감안 기차마을사업과 심청사업의 경우 방문자의 식음료 및 각종 기념품, 농특산물 구입, 숙박 등의 민간사업영역은 가급적 침범하지 않고 추진하되, 적극적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V. 맷음말

곡성군은 전라선 폐선 활용으로 ‘기차’가 갖는 이미지인 ‘향수(鄉愁)’를 모티브로 하여 자연자원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섬진강 기차마을』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만고효녀 심청의 심청문화센터, 심청마을, 심청축제』를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기차의 이미지인 향수와 연계하여 곡성군만의 새로운 매력물로 바람개비·꽃동산과 심청과 기차가 어우러진 특산품 제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섬진강의 중심에 있는 젊은 곡성의 기상이 ‘기차’라는 주된 테마와 곡성으로의 귀향을 의미하는 ‘꽃’과 ‘바람개비’로 형상화될 경우 인접 타시군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은 관광객 유인력이 가장 큰 섬진강·보성강변의 천연자원과 주변 농촌의 아름다운 풍광 및 체험거리를 연계하여 즐기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향토공간으로 조성하고, 춘향골 남원과 지리산권 구례 등과 관광벨트화하여 호남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육성, 섬진강 기차마을의 사업구간은 섬진강과 국도 17호선, 철도가 나란히 달리고 있어 전라선 구간 중 가장 정취가 깊은 곳이며, 인근에 심청마을이 있어 핵가족화·고령화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전통 흐 사상의 계승발전 및 확산과 관광 및 실버산업 등 투자를 유치하고, 더불어 『환경농업 1번지 콜짜나라 곡성』과 『효녀심청』을 연계하여 청정지역의 지역농특산물 이미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안정적 판매기반을 개척하여 지역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최근의 국민 관광 패턴은 단체관광에 못지 않게 가족관광, 개인관광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보고 즐기는 관광에 못지 않게 참여하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곡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며, 『치포치포 섬진강 나들이 관광열차』가 지속적으로 유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수도권의 대도시 인구를 곡성향토관광에 끌어들여 열악한 지역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안정적 소득기반 창출,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의 경영 관점에서 좋은 곡성의 향토관광여건을 조성하며 이에 필요한 공공재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고, 민간경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 운영하되,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역할 수행에 주력, 특히, 깨끗한 환경보존을 통해 좋은 환경을 곡성향토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여타의 향토 관광자원과 개발사업들을 연계함과 동시에 곡성관광을 선도할 쌍두마차인 『섬진강 기차마을』과 『심청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21세기는 보다 더 발전된 곡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